

## “재생열 확대, 히트펌프 보급”...열에너지 탈탄소화 추진

- 열 부문 탈탄소 전환 방향을 담은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 공개
- 세부 과제 구체화·공론화 위한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포럼)’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재생열) 공기열,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 기반 열원과 미활용 열 등을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 4대 전략 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열에너지 혁신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에서는 정책 추진의 시급성과 산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 이행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제는 열에너지의 탈탄소 전환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에너지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열에너지 혁신 포럼 출범식 개요.

※ 별첨: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3-5140)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3-5145)



□ **포럼 개요**

- (일시/장소) '26.4.15(수) 17:00 ~ 18:00 / HJ 비즈니스센터 13층 세미나룸 D
- (참석자) 기후부 장관, 수소열산업정책관, 열산업혁신과장, 산·학·연 전문가 약 20명
- (주요내용) 열에너지 혁신 전략 세부과제 구체화·공론화 위한 포럼 출범

**【 열에너지 혁신 포럼 세부 과제(안) 】**

- ① 재생열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 방향
- ②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③ 지역난방 재생열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④ 열에너지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및 추진 방향

□ **세부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17:00 ~ 17:05	5'	• 개회
17:05 ~ 17:10	5'	• 열에너지 혁신 포럼 출범
17:10 ~ 17:25	15'	•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 발표
17:25 ~ 17:55	30'	• 자유 토론
17:55 ~ 18:00	5'	• 폐회